



主題：醫療人과 患者와의 關係

제19차 세미나 초록

(演) (題)

醫師와 患者와의 關係

全 鍾 暉

〈가톨릭醫大 內科敎授〉

Relation between Medical Doctor and Patient

Chung Hwee Chun
Department of Internal Medicine
Catholic Medical College

머 리 말

의사의 임무는 精神 및 肉體的不條理에 의하여 괴로움(Suffering-Hippocrates)을 받고 있는 사람(患者)에게 최선의 기술적인 도움을 주어서 그 괴로움에서 벗어나게 하는 행동이 될 것이며 따라서 醫學이란 본래 이와같은 「治癒를 얻기 위한 知識」(Heilkunde)이라고 하겠다.

醫療는 본질적으로 倫理와는 떨어질 수 없는 기술이라고 하겠다. 사람이 사람에게 관련된 기술이라는 것은 異色的인 기술로서, 演者의 판단으로는 敎育이외에 이와같은 것이 있는지 갑자기 생각이 나지 않는다. 따라서 倫理的의信念이 없는 의사는 참된 의사도, 위대한 의사도 아닌 것이다. 그 자체가 文化現象인 醫道에 있어서는, 醫學倫理的의態度는 學問的素養과 함께 참되고 올바른 의사로서의 尺度가 될 것이다.

科學으로서의 의학도 人類愛의 근본정신에 입각하여 발전되고 또 施術되어야 한다. 東洋에서 오래전부터 내려오는 말에 「醫는 仁術이다」라는 用語—(演者는 쓰기를 싫어하는 문구이다)—가 있으나 이것은 어디까지나 그 眞意는 의료에 관계되는 여러가지 難題를 倫理的의次元에서 해석하고 처리하여야 함을 강조한다고 演者는 생각하여 본다. 仁術이란 글자대로 해석하여 仁慈스러운 技術이라하여 “惠澤을 입힌다”는 뜻과 같은 교만한 행위가 아님은 물론이고, 도움을 바라는 약자인 환자에 대

한 의사의 權威主義에 기원한 것은 또한 아닌것이며. 또 절대로 그렇게 되어서는 아니될 것이다. 그것은 의사의 참된 직분이 어짐(仁一人間愛, humanity)에 근거하여, 즉 환자와 의사와의 當爲의 人間관계로서의 倫理와 不可分の 技術이라고 자각한 의사의 막중한 책임과 두려움에서 발하게 된 獨白이어야 할 것이다. 요컨대 人間愛가 의사의 행위의 動機가 되어야 하는 것이다.

다 아시다시피 住民의 질병치료, 예방, 건강증진, 기능재활, 능률적인 생활들에 관여하는 現代醫學은 인간의 의식주, 오락, 교통, 범죄, 기업, 정치 등 사회 및 가정관계 어느 부분에도 관련성이 없는 것이 없는 만큼, 다루는 내용이 팽대하여졌고 범위가 확장되었다. 自然科學에 토대를 두어 계속발전하는 현대의학은 끊임없는 그윽한 향기를 우리 인간생활 모든면에 널리 펼쳐주는 社會科學의 性格마저도 다분히 간직한 것이 또 하나의 특징이라고 하겠다.

의학의 科學性과 藝術性

생각하기에 따라서는 하느님이 사람에게 주신 것 중 의사가 봉사하는 機會, 責任, 義務보다 더 훌륭하고 값진 것은 없다. 환자의 고통을 치료함에 있어 의사는 과학적인 지식, 숙련된 기술, 및 人間理解를 가지고 맞서기로 되어 있다. 또한 醫術을 행사함에 있어서도 勇氣·謙遜·知慧들을 마련하여야 하는 의사는, 유례없는 봉사를 四海同胞에게 하기로 되어있으며 지속적인 고매한 性格을 지니도록 되어있다. 의사는 자기의 宿命이 이런 것이라는 것을 일찌기 체념하고 또한 이것으로 만족하지 않으면 아니되게 되어 있다. 따라서 醫療를 행사함에 있어 의사는 과학적인 방법을 구사하며 또한 문제해결의 기본원리를 파악하도록 훈련되어야 한다. 현대의학은 自然科學에 기반을 두었고 그것의 발전에 따라 더욱 발전을 꾀하여 왔다는 것이 주요한 하나의 특색이다. 우리의 의학은 모든 自然科學分野의 精粹를 따서 이것을 人體에 이용하므로써 크게 발전하였음을 누구나도 시인하는바이다. 따라서 현대의학은 自然科學의 꽃이거나 열매인 것이다. 이 科學의 土台 위에서 지 않은 治療術

은 巫術이거나 神癒이며 自然治癒에 의거한 것 뿐이지 醫術하고는 구별되어야 한다.

의사가 졸업후에도 계속발전 되는 醫學知識을 얻고, 향상된 醫療技術을 습득하여야 하는 練修教育을 생애중 지속할 중대한 義務가 있다고 주장케 되는 제 1의 이유는 현대적 의료수준을 가지고 환자를 치료한다는 保證을 주는 것을 뜻하는데 있고, 또 제 2의 이유는 醫療활동의 대상이 人間生命 자체이며 이 세상에서 제일 價値있는 일의 하나라는 데에 있다. 따라서 人間生命이 문제되고 있는 곳에서는 「醫學的無知는 범죄이다」라고까지 말할 수 있다. 만약 의사가 최선을 다하여 환자의 치료를 하였다하더라도 그가 5년간 학문적 지식을 탐구하는데 게을리하였다면 그는 이미 의사로서 적절한 바른 치료를 할수 없는 것이고 道德的으로나 倫理的으로도 정당하다고 볼수 없는 것이다. 倫理性에 앞서는 것이 科學的醫學知識인 것이다. 환자나 그 가족들도 현대의학의 科學性을 인정하고 이 施術이 치료의 正道임을 이해하고 협조하여야만 그 治療性의 혜택을 더욱 많이 받을 수 있을 것이다.

醫學의 藝術性의 중요성에 대하여 일반인에게는 그렇게 널리 알려지지 않았고 理解도 덜 되어있다. 결론부터 말한다면 醫療는 科學性과 藝術性의 결합으로서 이루어져야 하고 나타나야만 하는 것이다.

현대의학은 곰보인 醜女를 美人으로 만들며 앓은 병이를 熟練工으로 재활시키며, 食蟲 구실밖에 못하던 정신병자를 사회 생활에 복귀시키는 일을 감당하여 성공시키고 있음으로, 과학중의 과학이며 최고의 藝術이라 하여도 지나친 표현은 아닐듯하다. 이런 표면에 쉽게 나타나는 사실 이외에도, 우리 醫人들이 매일같이 하는 일에 깊은 藝術性을 지니고 있다.

복잡다단하여 혼돈되는 症狀의 迷路로부터 헤명할 수 있는 실마리를 찾아내는 거라던지 일치하지 않는 徵候나 試驗室成績의 많은 數值중에서 어떤 것만을 채택 결정하는거라던지 이것도 저것도 아닌 中間型症例에서 언제 어떤 검사나 치료를 시작하는가 또는 언제 그만두는가 하는 따위의 결정을, 훌륭히 융합된 經驗에 의거한 判斷에 의한 것으로 科學性외에 다분히 藝術性이 포함되는 것이다.

直感과 완숙된 知慧는, 환자와의 좀더 친밀한 개인적인 관계에서 발현되기 마련이고, 환자의 표연상의 動機나 行動을 直觀적으로 이해하고 파악할 수 있는 能力도 역시 완숙된 經驗과 次元 높은 藝術性에 기원한다고 하겠다. 機敏한 의사는, 환자의 사소한 呼訟의 우연한 言及에서 癌이나 心臟病의 위험스런 病症에 대하여 의심을 가지게 하여, 이것들을 확인하려는 태세를 갖추도록 하게 하는 것이다.

또한 환자생명의 심오한 면을 더 계속하여 탐구할 價値가 있는지 없는지를 곧 알게 된다던지, 病態에 대하여 언제 환자와 對話하는 것이 환자의 嫌惡를 극복할 수 있을 것인지, 病症의 樣相을 말하지 않고 버티는 것이 좋을지 나쁠지 또 어느때 확고하고 명랑한 豫後를 환자에게 알려 줄 것인지 또 어느때 어떻게 의심스러운 점이나 留意할 점들을 말하여야 할 것인지 또 이것을 적절히 처리함과 같은 것은 科學性도 倫理性도 아니고 이런것들은 藝術的인 境地에 속하는 것이라 말할 수 있다. 이러한 「操縱된 經驗」을 행사하여야 한다는 뜻에서도 의학은 하나의 예술인 것이다.

또 다른예로서 환자의 病症이 不治의 것으로 규명되었고 주검이 절박한 것을 깨달아 가능한 모든 방법을 하여달라고 환자가 요구할 때, 주검을 피하기 어렵다고 환자에게 의사가 선고하거란 대단히 어려운 일이고, 이런말을 들었을 때의 환자의 失望은 그 이상의 것이 없을 것이다. 그러나 환자와의 접촉에서 安慰 縮念을 얻게하고 용기를 내게하고 信仰이나 冷徹함을 잃지않게 하고 남은 짧은 餘生이지만 뜻있고 보람있게 살수 있도록 하게 하는 의사가 있을 수 있으니, 이는 바로 科學이나 倫理이상의 次元 높은 技術이 아닐수 없다.

그러하여 東洋에서 仁術을 내세웠을 때 西洋에서는 醫藝術(medical art), 藝術科學(art science)들의 用語로서 대응하였던 것이다.

의사는 그 연구에서나 환자의 加療에서 환자의 權益을 위한다는 目的을 유지하여야함은 本質的인 것이다. 그렇다 하더라도 의사는 현명한 判斷力을 가져야 하며 또한편 그의 一次的이고 전통적인 목적은 巧利主義者—(病症을 예방하고 치유시키며 환자의 心身의 괴로움을 덜게 하여야 한다는 점에

서)—가 되어야 함도 잊어서는 아니된다.

한 사람으로서의 患者

우리 醫人들이 다루는 환자는 단순히 각종 症勢나 病的인 기능, 손상된 臟器 또는 장애받은 感情들의 集合體만은 아닌 것이며 恐怖心도 있고 희망도 가지고 病苦에서 빠져나가려고 救助와 회복의 보증을 갈망하는 人間이라는 사실을 同情과 理解를 가지고 보아야하는 데에 올바른 醫人의 태도가 규정되어 있다.

일반적으로 말하여 환자가 의사에게 처음대하는 태도에, 무의식중 嫌惡와 恐怖의 기미를 피게되는 것이 상례이다. 그리고 환자의 갈망인즉, 당장의 快態보다는 괴로움으로 부터의 조속한 解放이며 平安을 다시금 얻는 것일 것이다. 그리고 환자의 信念이나 期待는 이런 恩惠의 魔術적인 出現이 의사에 의하여 올것이라는 소망을 가지고 있다. 이런 환자의 욕망이, 이론적인 해설이나 교육으로 또는 신임두터운 솔직성으로서 수월하게 해결되리라고 생각하여서는 아니된다. 환자의 기대는 큰데 비하여 우리의사들의 능력이 제한되어 있음에 안타가 울때가 많다.

醫學徒들은 理學的 및 檢査室診斷의 방법에 대하여 많은 교수, 專門家, 先輩들로부터 기초 研修를 받게되나, 그후 환자와의 親近, 平穩중 원만하게 접촉됨으로서 技術의 숙련을 쉽게 달성하게 되는 것으로 되어있다. 그러나 만져서 알수 없는 精神科分野의 숙달은 그리 쉽게 얻어지는 것은 아니며 환자파악의 요령도 敎訓만으로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고 情緒의 完熟에 의하여 달성되는 것으로 되어 있다. 情緒完熟은 人間の 문제를 깊이 또는 바르게 볼 수 있는 能力의 自己敎養에 의하여 또렷이 표현되는 것이다. 診察醫師자신도 하나의 人間임을 자인하고 자기生涯에도 잘못된 事故가 있었음을 깨닫고 늘 反省하는 것이 상례일 것이다. 실제로 친절하고 양심적인 의사라할지라도 자신의 불안정한 意識構造 때문에, 실혹 환자의 不協助나 抵抗이 없었는데도, 憤怒와 不安으로, 理性을 잃는 수도 있음을 시인하면서, 自省하는 자세로서 患者에 대하여야 한다. 따라서 환자에 대한 성공적

인 摸縱은 의사의 情緒完熟에 기대될 수 있으며 또 한 이에 의하여 원만히 성취될 수 있는 것이다.

환자의 情緒生活을 정확히 파악하는데는 많은 어려움과 방해가 있을 수 있다. 器質的疾患은 오히려 우리의사들의 주의를 끌지 않을 수 없는 症狀들이 있어서, 우리를 그렇게 當惑시키지 않으나, 感情的基盤에 기인 한 病症을 바르게 파악하는데는 時間 精力 經驗들이 더 많이 요구된다. 현재 환자가 우울하여진 원인으로서는 貧困, 不安定이나 직업적 내지 가정불행들을 다 파악하여, 현재의 病症을 바로 解明하기란 대단히 힘든 일이다. 그러나 환자의 病症의 모든 現象을 설명하려면 과거 어릴 때의 여러가지 事件, 經驗으로 시작하여, 현재 매일 일어나는 여러가지 문제들을 잘 파악하여 바르게 해명하여 줄만한 의사의 知識 經驗 情緒完熟 등의 폭넓은 力量이 있어야 마땅할 것이다.

어릴때의 장기간에 걸친 病弱은 피할 수 없이 지나치게 利己의이 될수 밖에 없게되는데, 이것이 生涯동안 지속되는 神經症의 基底가 되기도 한다. 成人이 된 후에도 疾病은 가끔 依賴心을 일으키게도 하고, 주변의 변화는 근심과 낙담에로 이끌기도 하고 또한 가끔 焦燥와 憂鬱에 빠지기도 함을 의사들은 경험하여 잘 알고 있다. 그들 환자는 醫治를 거절하게도 되고 또 설혹 의사에게 診察받으려는 용기를 일으켰다 하더라도, 자기가 현재 깊이 관련된 괴로움이나 사실에 대하여서는, 言及하지 않거나 극히 말하기를 회피하려 하는 일이 있음도 경험하고 있다.

특히 주요한 것으로 늘 留意하여야 할 사항은 高齡의 환자를 다룰때에는, 이분들이 「사닥다리는 이미 놓여있다」(갈길은 뻔하다)는 思考, 따라서 주점은 늘 가까이 있다는 恐怖心에서 떠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이라 하겠다. 우리가 노인환자를 다룰 때 이런 心情을 건드리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할 것이다.

요컨대 환자진료에 있어 우리 의사들은 환자의 肉體的理學所見에 관심을 가짐과 동시에 환자의 미묘한 感情, 精神상태의 파악에 이제까지 보다 더 많은 考慮와 努力을 기울이어야 할 것을 강조하는 바이다.

醫師의 責務

의사는 환자의 호소하는 괴로움에 대하여 응답하여 輕快를 줄수 있는 方案을 강구하고 한편 아직은 나타나지 않았으나 病症의 근원이 될수 있는 所見을 찾아내고, 앞으로 惡化시킬수 있는 異常을 발견하고 또 계속 환자의 安寧상태를 유지할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여야 한다. 이러한 모든 成果를 거두려면 의사는 폭넓은 所在識(orientation)이 있어야 함이 요망된다. 病症은 單一系統에 국한되는 것도 아니며 또 單一病症에 끌리고 말아야 된다는 법도 없다. 一次診察를 맡은 의사이거나 一般醫이거나 專門醫이던간에 환자를 單一臟器別에 국한하여 진찰할 것이 아니라 한 사람전체(疾病이 아니고 환자로서)를 총괄적으로 診察檢討되어야 하는 것이다.

다 아시다시피 현재의 胃潰瘍이나 高血壓의 유인으로서, 환자의 과거나 현재의 여러가지 문제가 관련될수 있는 점들을 잘 파악하여 그 誘發素因이 될수 있는 것들을 제거할수 있어야 완전한 治癒를 기대할수 있는 것이다.

젊은 의사는 가끔 환자를 다루는데 자기는 적당하지 못하다는 것을 자인하는 수가 있다. 환자의 문제를 정확하고 안전하게 다룰수 없다는 것 뿐만 아니라 의사로서의 權威를 지키고 責任을 쉽게 다할수 없다는 것을 새로히 경험하였기 때문이다.

한편 의사는 社會에서 特殊機能을 가지는데 生物學者로서 人間疾病을 다룰 技能을 가짐과 동시에, 心理學者로서 人間行動에 대한 解明 把握의 技倆이 있어야 하는 것이다.

괴로움을 받고있는 환자에게 의사는 조용한 人間理解와 良心과 信念에 기초를 둔 保障을 늘 줄수 있어야 한다. 器質的疾患이 感情的煩惱에 의한 「스트레스」 症候群에 由來될수 있음을 이해케 된 것은, 근년에 얻은 주요한 발견이다. 우리의사들은 人間行動의 因果法則을 받아드려야 하는 만큼 忍耐와 誠實을 가지고 환자의 發症動機를 찾도록 하고 이것을 적절히 처리하여주어야 할 것이다.

의사나 人類學者에게는 괴벽하거나 이상한 人間이라하여 相對하지 않고 되쫓아 버릴수는 있을 수

었다. 非社會性이면서 理智的인 사람은 器質的疾患에 대하여 敏銳한 診斷學者가 될 수 있을지는 모르나, 올바른 醫師로서 행세할 수 있는 期待는 가질 수 없게 되는 것이다. 참된 의사는 活潑한 呼吸력(shakes pearean breath)을 가지고 賢者나 愚者, 自存心이 강한 사람이나 겸손한 사람, 嫌世家나 無賴漢이나 다 다물수 있도록 되어야 할 것이다. 의사는 모든 사람과 다 잘 應對하기로 되어있기 문이다.

한편 근년에 이르러 豫防醫學의 導入으로 의사의 責務의 일부로서 새로운 分野가 설정 편입케 되었다. 豫防醫學의 知能的인 행사는 가끔 印象的이라고 고려되기도 한다. 醫學의 새로운 分野에서 개인을 대상하기보다는 集團體 또는 全體人口를 대상으로하여 保健문제를 다루는 것이 중요할 수도 있다. 이런 方面의 의료행위는 의사와 그 도움이 어떤 集團에 갈리어, 특히 그들이 뚜렷이 病的이거나, 그들의 不平이 疾患과는 관계없는 상태이지만 疾病發生을 미리 예방한다는 뜻에서 週期的인 集團檢診이 실시되고 있다.

不健康의 早期徵候를 인식 발견하는 것은, 환자 자신이나 그 가족이 알아채릴 만큼 뚜렷한 病症을 찾아내기 보다는, 좀더 技術과 經驗을 요하는 것이다. 潜在的인 重病을 早期에 발견한다거나 치유시키는 것은 不治狀態에서 하는 봉사보다는 훨씬 훌륭한 봉사를 한다고 하겠다. 血壓이 높다거나 血糖量이나 血清尿酸量 또는 콜레스테롤量이 高值임을 無症狀人에게서 찾아낸다거나, 輕症의 神經症 또는 憂鬱症환자와 面談한다는 것은, 病症발현을 예방하는데 좋은 기회를 얻게 하였거나 時期를 놓쳐 큰 後遺症을 남길뻔하였던 것을 막을 수 있었다는데에 큰 意義가 있다고 본다.

앞으로 오는 環境與件이나 生態學的樣相의 변화에 맞서, 우리醫人들이 담당할 責務는 더욱 많고 무거워질 것으로 職業病, 産業災害, 公害, 人口問題, 營養, 住居, 放射能파위와 관련되는 보건상의 여러문제들은, 우리의 사들의 役割을 크게 기대하고 있는 分野이기도 한 것이다.

그러나 의사도 또한 하나의 人間인 것이다. 人間이라함은 安逸과 利己에 기울어지기 쉽다는 뜻이다. 자기 자신이 人間으로서 또는 의사로서, 그

行動과 理想的的醫道規範과를 부단히 對決시킴으로서, 비로소 “人間의인, 너무도 人間의인” 것에 점차로 타락하여가는 자신을, 구원할 수 있는 것이라고 본다. 다시 말하여 올바른 의사로서의 생활 태도라는 것은 道德的 및 倫理的 諸原則을 습관적으로 응용하고 실행하는 것을 요구하는 것이다. 醫學자체의 학문적연구와 醫師倫理의 學習과 藝術的技巧의 연마와는 늘 提携하여 나아가야 할 것이다.

患者醫師關係의 변화

환자와 의사와의 1대1의 관계가 오랜동안 醫界에서 전통적인 相互對象으로서 지속되어 왔으나 근자에 와서 이모습이 변하여 지고있다. 醫療가 다루는 分野가 넓어지고 많아짐에 따라 그 변화가 음은 자연적인 추세라고 볼수밖에 없다.

한개인의 치료를 다루는 경우에도, 요새 와서는 많은 事例에서 혼련된 각종 技術과 知識을 가진 분들이(의사나 정신과 의사의외에도 간호원, 조수, 의료기술자, 영양사, 생화학자, 생리학자, 그의 방계 의료인들의 참가)醫療陣을 구성하여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협력하도록 되었음이 現代醫療의 하나의 특징이라고도 하겠다. 이러한 協力者들의 도움과 그 도움의 효과를 환자들은 실제로 많이 받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역시 환자의 病症期間을 통하여 모든 책임을 지고 이런분들을 적절히 동원시키어 환자를 올바르게 치료하도록 할 의무가 의사에게 있는 것이다. 따라서 醫療陣구성에 따라 일어나고 증가되는 어려운 문제들을 극복하고 최선의 治癒를 거두려 함에는, 의사자신이 어떤 技術이나 의료기계稼動의 기본지식이 우선있어야 하고 또 陣構成協力者들과 움직임에 있어 呼吸이 맞아야 하는것이다. 의사는 실시한 모든 檢査나 手技성적에 대하여 바른 解釋을 내려야 하고 전체 臨床像의 바른 종합적인 結論을 내려야 할것이다.

즉 모든 주요한 科學的情報에 의거하여 환자에게 효과있는 도움을 줄수있도록 하여야하겠기에 의사는 올바른 診斷과 治療의 방침을 세우는데 결정적인 判斷을 내릴 책임이 있음과 아울러 醫療陣의 능을있는 동원과 협력을 펴할수 있는 指揮力도 갖

주어야 할 것이다.

醫療의 범위가 넓어짐에 따라 이제까지 전통적으로 존재하였던 환자 의사관계는 달라질 수밖에 없다. 또한 환자수가 많아지고 치료양식이 복잡하여짐에 따라 의사一人에 依存치료함보다는, 의사「그루음」, 診療所, 또는 綜合病院에서 치료받는 것이 환자측으로 볼 때 유리한 점이 많을 것도 사실이나, 한편 의사나 환자의 입장에서 볼 때 不利하거나 不德스러운 것이 있게 되는 것도 사실이다.

어떠하던간에 각자 환자에 대하여 그 환자의 一次 또는 계속적인 치료의 책임을 지는 主治醫師의 설정과 그 主體性은 뚜렷이 규정되어져야 하는 것이다. 환자질환의 종합적인 것을 다루어, 病症에 대한 환자의 반응, 약에 대한 또는 매일 생활에 관련되어 문제되는 것들에 대응하여, 잘 지도 처리하여 줄분이 바로 이 主治醫師인 것이다. 또 겸하여 여러의사가 함께 한 환자의 진료에 가담하더라도 主治醫師가 주동이 되어 體系 있는 機動性이 발휘되어서 옳고 좀 더 자세하고 구체적인 經過 檢査 成績 따위가 이분의 책임하에 정리되어 기록보존되어야 마땅하다. 그리하여야 향후 계속되는 환자의 치료에도 차질이 없게 될 것이다.

患者와 醫師와의 對話

올바른 診療에 있어 疾病樣相에 대하여 숙련되고 疾病機轉을 충분히 이해한다는 것은(科學的知識)본질적인 것임에 틀림없으나 환자와 의사간에 效果的對話가 없을 때에는 많은 경우 비참하게도, 대기되는 治効를 거두지 못함을 경험함도, 또한 사실이다. 疾病機轉의 정확한 理解가 증가됨에 따라(科學的知識의 向上) 모든 면에서 환자의 본질적인 個性(精神的要素)이 주요함이 시인되게 되었는데, 이것은 이상하게 생각할 것이 없는 것으로 당연한 일이기도 하다. 個性은 개개 性格의 차이에 의거함은 물론이거니와 個性의 충분한 理解는 친밀한 對話에 의하여 얻어지는 것이다.

同情的이고 識別될 수 있는 病歷채취가 환자와 의사가 서로 알게되는 처음이고 제일 주요한 계기가 되는 것이다. 침착한 태도로 의사가 面接하면서 환자의 문제를 주의 깊게 청취할 때에는 信賴感

이 생기게 되어 곧 이어서 가정내 친족들에 대한 조사도 쉽게 되고 결혼생활 상태, 직업상의 문제 따위와 아울러 여러가지 환경적인 要素들도 파악되어, 환자의 面貌가 뚜렷하여지게 된다. 환자의 內的的 面貌가 성공적으로 파악되었을 때, 곧 活性을 더 얻게 되어, 처음에는 환자와 친근하게 되는 상태이나, 그뒤에는 진전되어 親友로서 친교를 맺을 정도에 까지 이르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의사는 끈질긴 忍耐로서 환자의 呼訴를 들어줄 것인데 여기에서 현재의 괴로움과는 관계없는 다른 문제도 알려지게 될터인데 이것이 장차의 病苦의 원인이 될 수 있으리라고 생각될 때에는, 그 分野의 專門醫에게 소개하여 診察받도록 하여야 하는 것이다.

의사가 가지는 同情과 溫和함은, 처음낫설은 사람으로 왔던 환자의 焦燥와 恐怖의 장벽을 깨고야 말게 되는 것이다. 이 障壁이 있는한 診斷評價의 관철은 크게 방해받게 될 것이다. 만약 환자가 생각하기를 자기의 病苦가 科學的興味를 자아 낼뿐 아니라 자기의 安寧이나 幸福과 크게 관계된다는 것이 고려될 때에는, 자기의 생활이나 자기의 깊은 感情마저도 討議함에 있어, 좀더 개방적이 되고 솔직하게 되며, 더 나아가 불쾌할 診斷手技나 治療에 관련된 귀찮은 術式에도 잘 협조하여 받게 되는 것이다. 환자와 의사간의 이쁘고 좋은 感情上信賴感은 治療效果를 더 높이게 될 것이고 그리고 치료중의 모든 節次가 순조롭고 즐겁게 진행될 것이다. 그러나 의사는 주의하여서 자기 자신의 感情을 너무 많이 나타내지 않아야 할 것이고 또 자기의 目的하는바를 잃지도 말아야 하는데 즉 自己均衡이 유지되도록 留意하여야 할 것이다.

위의 것들은 感情的面에서의 交接이 였으나 다음에는 文化的面에서의 交際에 대하여 언급하려 하는데 이것은 患者醫師關係에 있어 그 효과를 더 풍부하게 할 것이다. 이것은 藝術 文學 歷史 또는 政治에 있어 서로 흥미를 갖추는 데서 이룩될 수 있다. 다른 환경속에서 경험된 두사람간에 있어 相互交流가 흥미롭고 이롭게 이룩될 수도 있는 것이다. 다른 社會階層이나 또 다른 國家的 또는 人種的背景을 서로 배우는 것은 특히 의사에게는 유익한 報답이 될 것이며 이후 의사가 환자를 다루게 될

때 이 모든 것들이 크게 도움을 얻게 되는 것이다. 이외에도 知的面이나 相互誠實面에서의 交際도 있고 또 제일유요하나 흔히들 별로 언급하지 않는 유우머(익살웃음)에 의한 것도 있어서 특히 이 「유우머」는 가끔 환자의 우울과 초초를 해소시킬 수 있음에 유의할만 하다.

모든 醫療行爲에 있어 항상 두가지 부분이 있게 마련인데 의사 대 환자, 또 넓은의미에서는 醫療陣 대 社會의 두分野가 대응하게 된다. 醫療란 이 二群간의 多樣한 關係라하여도 過言이 아니다. 앞으로 오는 날의 醫療는 본질적으로 社會的關係에서 다루어 질 것이라고 주장하는 人士들이 있는데 이미 醫療技術이 중점적으로 특색을 이루는 단계에서 이 社會的關係가 강조됨은 피할 수 없는 사태라고 하겠다. 精密機械 技術, 각종檢査, 컴퓨터稼動 따위가 醫療를 둘러싸고 있을 制度下에서는, 醫療의 骨子が 돕는 자와 도움을 받는 자 사이의 人間의 상호관계에 있는 사실을, 쉽게 忘却할 위험성이 충분히 있다.

지난날의 個人診療에 있어 관계적인 患者醫師關係는 앞으로 오는 장래의 多邊性的 保健企劃으로 전환될 때, 이 患者 醫師關係는 어떻게 변천될 것인가? 이때 바람직한 관계는 어떤 것이 될 것인가? 다 함께 생각하여, 불만한 課題라고 인정되기에 이 모임에 提案하여 보는 것이다.

어떤분이 말한대로 모든 醫療行爲에 있어서 사랑이 앞서지 않고서는 需要者(환자)측의 믿음이 생기지 못하므로 이 「사랑과 믿음」이 없이는 아무리 좋은 (構成醫療陣容, 施設, 器材들)과 課程일지라도 실효를 거두지 못한다고 주장한 바는 참으로 옳다고 하겠다.

醫療의 社會化를 주장하는 社會學者들도 이상적인 醫療樣式은 전통적인 患者와 醫師와의 간의 1대 1 관계를 들고 있다.

醫療의 國營化내지 社會化制度下에서는 醫療의 官僚化로 모든 일이 사무적으로 되어 醫師와 患者간의 사랑과 믿음의 情이 마를 수밖에 없는 큰 결점이 있다.

앞으로 오늘날의 社會變遷에 따를, 다시 말하여 醫療의 社會化에 따를 의사와 환자와의 관계는, 여러번 언급하였듯이 달라질 수 밖에 없으나, 醫療는 古今을 통하여 人間적인 診療일 수 밖에 없으리라는 宿命을 지닌 것도 사실로서, 인간의 육체와 정신, 그리고 전체와 그 일부분의 복잡한 관계는 한 사람의 性格 體質 習性を 잘 아는 단골 醫療要員이 계속적으로 그 사람의 건강을 맡아서 돌보아 주어야 최선의 治効를 얻을 수 있겠기에 제일 바람직하다 하겠다. 앞으로 예상되는 醫療傳達體系는 需要者 즉 일반대중의 健康權을 社會가 保障해주는 방향으로 짜여질 것이며 醫療供給者로서의 의사는 이 體系속에 한 機成員이면서 아울러 機能的 役割을 담당하도록 되게 될 것이다. 따라서 사의가 이 體制달성 노력의 한 要素의 존재인 한에서 또 그 傳達者가 되는 일이 하나의 當爲인 한에서, 이 들일에 깊은 관심과 參與정신을 가져야 할 것이다.

그러하여 醫療傳達體系가 妥當하고 合理的인 것이 되도록 우선 노력하여 設定한후, 원만한 患者 醫師關係가 계속 유지되도록 힘을 것이다.

앞으로의 地域社會保健體制에서는 醫師는 단지 臨床家일 뿐 아니라 教育者, 또는 相談者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 地域社會의 指導者가 되는 새로운 任務나 役割이 규정되어 마땅하다고 본다.

발 ————— (축) ————— 전

제 6 회 백만인 걷기운동

대회일 : 78, 4, 30(일) 출발지 : 반포아파트광장